

글로벌IT기업 국내 R&D센터 설립 '중흥기'

04년 인텔 시작으로 20여곳 ... 국내IT 선도성 '세계가 인정'

국내에 주둔해 있는 IT관련 R&D센터는 2004년 3월 인텔 개소를 시작으로 IBM 등 이미 개소를 했거나 준비중인 곳까지 합하면 20여 곳에 이른다. 최근 모토로라도 이달 16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ITA)과 국내 R&D센터를 설립한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IT관련 연구센터를 계속 설립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IT의 토대가 세계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R&D센터 개소 현황을 모았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GE플라스틱스

GE플라스틱스코리아는 이달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한국 기술센터(Korea Technology Center)'를 설립했다.

한국기술센터는 전세계에서 7번째로 설립된 GE플라스틱스의 '글로벌 응용' 센터로 부품 성능 테스트, 다차원 테스트, 광학 및 결함 분석, 그리고 고도의 사출 성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기술센터는 2000평방 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글로벌 응용 기술 연구실, 사출성형 장비, 부품 테스트 실험실 그리고 GE의 최신 소재를 사용한 견본제품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LCD 디스플레이 필름용 클린룸, 전세계의 GE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으며, 다차원 측정기 등 분석 장비도 구비되어 있다.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온라인 인텔리전트 파워 서플라이 디자인 센터(www.microchip.com/power)를 개설했다. 엔지니어들은 이 웹 사이트에서 아날로그 파워 서플라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전문 툴이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저가형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기존 아날로그 파워 서플라이 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할 수 있다.

전력 변환 피드백 루프의 디지털 제어와 관련된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SMPS) 애플리케이션도 디자인할 수 있다.

구글

구글은 국내 시장 진입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서울에 구

글 R&D 센터를 설립될 예정이다. 국내 인력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글은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 코트라(KOTRA)는 12억 5천만원을 구글 R&D 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CEO 에릭 슈미트)은 지난달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홍기화 코트라(KORTA)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내 R&D센터 설립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은 인터넷 검색엔진, 자동번역, 영상처리 및 데이터 추출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국 R&D 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발달한 광대역,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지도(맵), 글로벌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은 국내에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측은 정확한 채용 인원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해외 기업 유치에 맡겨진 코트라측에 따르면 최소 100여명, 최대 15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R&D센터가 설립될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며, 설립 시점은 현재 미정이다.

TI코리아

TI 코리아는 올 3월 차세대 무선통신 연구소(Wireless Technology Center) 개소식을 가졌다.

TI 코리아는 통신연구소 설립을 통해 TI 제품에 기반한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활성화를 기대했다.

차세대 무선통신 연구소는 미래의 무선통신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현재 TI코리아는 3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카이스트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원을 영입, 정통부의 지원 하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TI의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온 TI 코리아 손영석 사장은 “연구소 개소는 TI 코리아가 국내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30년만의 쾌거이다”며, “앞으로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에서 진정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도약해 한국 전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셔널세미컨덕터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올 초 분당 글로벌외국기업 R&D센터(킨스타워 내에) ‘R&D 디자인센터’를 개소했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컴퓨터·패널디스플레이·무선전화기·PDA·인터넷 관련 등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회로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투자는 SoC(System-on-a-Chip) 분야 글로벌 거점 R&D센터의 최초 유치 사례로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앞으로 생산시설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반도체 전문업체인 내셔널세미컨덕터는 지난 2004년 4월, 경기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SAP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P는 올 1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의 산실이 될 SAP 코리아 로컬 연구개발(R&D) 센터(이하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설립,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SAP에 따르면, 연구개발 센터는 국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외자 유치의 최초 사례로 꼽힌다.

연구개발 센터는 향후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한국형 솔루션 개발을 위한 국내 파트너 육성 및 기술 전수, SAP의 선도기술에 대한 국내 소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SAP 본사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연구개발 센터에 약 90억원(700만 유로)을 투자할 계획이다.

AMD

AMD는 작년 12월 AMD 헥터 루이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MD 한국기술개발센터(AMD Korea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를 오픈했다.



삼성동 글라스타워 AMD코리아 본사에 위치한 ‘AMD 한국기술개발센터’는 김홍배 소장의 지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원들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 말까지 20여명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AMD측은 “AMD의 프로세서 기술력에 국내 모바일 및 임베디드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환경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와이브로·DMB·PMP·HDTV·웹모니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임베디드 프로세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자바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연구·개발 센터가 설립된 건 작년 4월이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스콧 맥닐리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자바 관련 기술 발전을 주도할 ‘한국 자바 리서치 센터(Korea Java Research Center)’ 개관식을 가진 것.

삼성동 아셈타워 한국썬 본사에 위치한 ‘한국 자바 리서치 센터(Korea Java Research Center)’는 약 60여명 규모의 자바 관련된 모든 연구 및 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부 글로벌기업 R&D센터 '집안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글로벌 IT R&D센터가 해외 연구원도 없이 국내연구원만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1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유치한 R&D센터 중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센터에서 연구중인 해외인력은 각각 1명,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IBM이나 프라운호퍼 R&D센터의 경우, 전체 인원이 각각 50여명과 40명으로 해외인력이 10여명 국내에 들어와 있고 카네기멜론(CMU)대학과의 공동연구에는 국내인원이 10명인데, 해

외인력은 24명이나 된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IITA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IBM, 인텔, 프라운호퍼(Fraunhofer), HP, TI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에만 250억원을 사용했고, 2006년에는 28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2005년 경우, 기관별 사용내역은 해외기관 107억, ETRI 99억, 기타 국내기관 44억등이다.

홍 의원은 "우리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이들 연구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기관명	주관/공동	연구기간	정부예산(05년)	인력	기술분야
IBM R&D센터(04.6월 개소)	IBM(단독)	04.08-08.07(4년)	38억(50:50)	총 57명(미국 12명)	텔레매틱스, RFID, SW
Fraunhofer R&D센터(04.5월 개소)	IGI/ETRI	04.08-08.07(4년)	50억(70:30)	총 40명(독일 11명)	디지털콘텐츠
Intel R&D센터(04.3월 개소)	ETRI/Intel	04.12-08.11(4년)	50억(50:50)	총 29명(미국 1명)	홈네트워크
TI R&D센터(06.3월 개소)	KAIST/TI	05.12-10.11(5년)	35억(50:50)	총 31명(미국 3명)	이동통신
CMU 공동연구	KISA/CMU	04.12-07.11(3년)	30억(75:25)	국내 10명, 해외 24명	정보보호
CSIRO 공동연구	ETRI/CSIRO	04.12-08.11(4년)	12억(50:50)	국내 8명, 해외 10명	디지털콘텐츠
Cambridge 공동연구	ETRI/Cambridge	05.09-10.08(5년)	35억(66:34)	국내 33명, 해외 25명	부품소재

한국 자바 리서치 센터는 썬의 연구개발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모바일 관련 기술 개발 환경과 기술 인력을 활용해 국내 IT 및 이동 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이 연구소는 자바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고 관련 기술 수출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썬은 4년간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자바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질런트

계측기, 반도체, 생명 과학 기기 전문업체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한국에 '애질런트 아시아 모바일 개발 센터' 설립한 건 작년 3월이었다.

아시아 모바일 개발 센터에서는 CDMA와 W-CDMA 전력

증폭기를 포함한 애질런트의 휴대폰용 부품 포트폴리오를 연구 개발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연구개발팀은 또한 애질런트의 소형 FBAR(박막체적탄성 파공진기)와 전력증폭기를 통합한 차세대 프론트엔드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텔

인텔 R&D 센터 발족식 및 인텔-한국전자통신연구원 MOU 조인



인텔이 국내 첫 자사 R&D 센터 설립을 발표한 건 2004년이었다. 거의 글로벌 IT관련 R&D센터의 효시로 불린다.

인텔 R&D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홈네트워킹과 모바일이며, 인텔이 주력하고 있는 UWB와 무선랜을 통한 홈네트워킹 구현이 연구대상이다.☑